

四象醫學 藥理에 관한 文獻的 考察

임진희 · 이수경 · 고병희 · 송일병*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Study on the Pharmacolog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Lim Jinny · Lee Soo-Kyung · Koh Byung-Hee, Song Il-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1. Objects of Research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find Dong-mu's thought on Pharmacology, through summarizing sentences related to pharmacology proposed in the chief writings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 Methods of Research

It was researched bibliologically with Dong-mu's chief medical writings such as 『Dongyi Suse Bowon Sasang Chobongyun(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Dong-mu's posthumos work(東武遺藥)』, 『Dongyi Suse Bowon(東醫壽世保元)』.

3. Results and Conclusions

1. The grouping criteria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proposed in 『Dongyi Suse Bowon Sasang Chobongyun』 is 'Spreading Outside' · 'Hardening Inside' · 'Cooling Organ' · 'Warming Inside', but the grouping of medical herb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s yet not accomplished, and medical herbs is comprehended on base of effectiveness as like existing oriental medicine.
2. The grouping criteria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proposed in 『Dong-mu's posthumos work』 is 'Spreading · Choking · Raising · Lowering' and 'Perfume · Smell · Fluid · Taste', and medical herbs is comprehended on base of effectiveness as like 『Chobongyun』, and the example on mixing of the herb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s showed.
3. The medical herbs are comprehended on the basis of how to effect on treatment of constitutional disease, and the principle that it's not to mix of the herb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s proposed in 『Dongyi Suse Bowon』.
4. The pharmacolog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accomplished after it is modified many times through clinic experience for a long time.
5. The pharmacolog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n the early period, is to comprehend herbs on the basis of how to complement 'Spreading · Gathering · Raising · Lowering' of 'Small-Organ(偏小之臟)' according 'Qi-Mei(氣味)' and effectiveness, but that in the late period is to comprehend herbs on the basis of how to complement or to control 'Small-Organ(偏小之臟)' and 'Large Organ(偏大之臟)'

Key wor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Pharmacology

접수일 2004년 3월 31일; 승인일 2004년 4월 13일

* 교신저자: 송 일 병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82-2-958-9233 Fax: +82-2-958-9234
E-mail: ibsong@khmc.or.kr

I. 緒 論

東武公은 자연과 인간을 인식함에 四元構造를 중심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00여 년 전 四象醫學을 완성하여 인간을 人稟臟理와 人趨心慾의 차이를 근간으로 太少陰陽의 四象으로 분류하고, 四象의 편차에 따라 질병의 치료와 양생 등에서도 각각 다른 방식을 제시하였다. 東武公은 질병의 주요 치료수단인 처방뿐만 아니라 처방을 구성하는 本草 또한 그의 四元構造的 認識論을 바탕으로 분류하고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의 의학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東武公이 本草를 분류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준에 이루어진 本草에 관한 연구는 宋¹⁾, 宋²⁾, 鄭³⁾, 李⁴⁾, 김⁵⁾의 연구에서는 四象醫學의 本草 분류를 기존 證治醫學의 藥理에서 제시하는 效能, 氣味, 歸經등을 근거로 분석하려 하였으나 일부 경향성만을 확인하였으며, 박⁶⁾의 연구에서 東武公의 서적을 중심으로 東武公의 本草分類 기준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四象醫學 藥理에 관한 이해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四象醫學의 주요 서적을 중심으로 東武公이 제시하였던 藥理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東武公의 주요 서적을 중심으로 東武公이 각 서적에서 제시한 四象醫學의 藥理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四象醫學의 藥理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1) 宋一炳. 四象醫學의 藥理的 考察.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67
- 2) 宋炳基. 東醫壽世保元 新定方에 사용된 藥材의 本草性能에 관한 통계적 연구. 서울. 1976; 東洋醫學 2권 3호
- 3) 鄭鳳然. 四象醫家에서 分類한 各 體質藥物에 관한 文獻考察. 서울. 四象體質醫學會誌. 1995;7(1):169-262
- 4) 李時雨. 東醫壽世保元 처방에 活用된 藥材에 대한 考察. 전북익산. 원광대학교대학원. 1999
- 5) 김중열. 四象 藥材別 藥材 分類에 관한 研究. 서울. 四象體質醫學會誌. 2001;13(1):8-16
- 6) 박성식. 「東武遺稿 藥性歌」에 대한 研究. 서울. 四象體質醫學會誌. 2001;13(2):8-27

II. 本 論

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本草 인식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⁷⁾의 저술시기는 『東武遺稿·藥性歌』나 39세 亡陰證 치험례 이후 저술로 『格致藥·儒略』·『格致藥·反省箴』저술 전이나 저술 당시로 추정되어 40대 후반과 50대 초반 사이의 저술로 추정되며⁸⁾, 이 판본의 내용은 東武公의 초기 사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草本卷』의 내용을 중심으로 東武公의 초기 藥理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겠다.

『草本卷』에서는 인간의 四臟인 肺脾肝腎의 기능에 대하여 ‘脾와 腎은 水穀의 出納에 관여하고, 肝과 肺는 氣液의 散充에 관여한다’⁹⁾, ‘穀道의 대사과정에서 上下의 溫冷이 발생하고, 氣道의 대사과정에서 表裏의 虛實이 발생한다’¹⁰⁾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少陰인과 少陽人の 경우를 예로 들어 ‘水穀을 納하는 胃와 水穀을 出하는 大腸의 편차에 의해 少陰人은 寒氣가 잘 생기고, 少陽人은 熱氣가 쉽게 발생한다’¹¹⁾고 설명하였다. 또한 四象人 藥물의 기본약리를 ‘太陰人藥은 外通하며, 少陽人藥은 淸腸하고, 太陽人藥은 固中하며, 少陰人藥은 溫裏하다.’¹²⁾고 제시

7) 함흥의 崔謙鏞이 소장하던 것으로 金九翬이 手抄하여 1984년 筆寫本이 影印되었고, 1985년 10월 延邊朝鮮族自治州民族醫學研究所에서 발간한 『朝醫學』第一冊 四象醫學論에서 부록으로 ‘四象醫學草本卷’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것. 이하 『草本卷』

8) 이수경.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 研究. 서울. 四象體質醫學會誌. 1999;11(1):77

9) 『草本卷·原人之第五統』
: “脾以納 腎以出 脾腎者出納水穀道之府庫也, 肝以充 肺以散 肝肺者散充氣道之門戶也.”

10) 『草本卷·原人之第五統』
: “穀道通於腸胃 溫冷交濟於上下, 氣道通於三焦 虛實均適於表裏.”

11) 『草本卷·病變之第五統』
: “問: 水穀之入于腸胃也, 爲其所化一也, 而少陽驅穀常病于熱, 少陰驅穀常病于寒者何也, 曰: 少陽人水穀之胃潤而泄穀之大腸窄, 譬如甕中酒釀宿釀密封則熱氣易生也, 少陰人泄穀之大腸潤而水穀之胃窄, 譬如停溜之水泉生泉益來則寒氣易生也, 是故, 少陽大便一日數三次益好, 少陰大便二三日一次無妨.”

1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 “太陰之藥 宜通外而不宜固中, 少陽之藥 宜淸腸而不宜溫裏, 太陽之藥 宜固中而不宜通外, 少陰之藥 宜溫裏而不宜淸腸.”

하였으며, 각 체질별 약물을 ‘肺藥·脾藥·肝藥·腎藥’으로 命名하였다.

이를 좀 더 확충하면 『草本卷』에서는 각 체질별 臟腑의 편차에 의해, 太陽人의 경우는 肺에서 氣液을 散하는 기능은 왕성하고, 肝에서 氣液을 充하는 기능은 취약하여 虛證의 병리가 발생하게 되어 太陽人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固中’하는 약물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太陰人은 肝에서 氣液을 充하는 기능은 왕성하고, 肺에서 氣液을 散하는 기능은 취약하여 實證의 병리가 발생하게 되어 太陰人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通外’하는 약물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少陽人의 경우는 脾에서 水穀을 納하는 기능은 왕성하고, 腎에서 水穀을 出하는 기능은 취약하여 熱證의 병리가 발생하게 되어 少陽人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清腸’하는 약물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少陰人의 경우는 腎에서 水穀을 出하는 기능은 왕성하고, 脾에서 水穀을 納하는 기능은 취약하여 寒證의 병리가 발생하게 되어 少陰人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溫裏’하는 약물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肺藥은 ‘通外’하는 약물, 脾藥은 ‘溫裏’하는 약물, 肝藥은 ‘固中’하는 약물, 腎藥은 ‘清腸’하는 약물로 정리할 수 있다.

『草本卷』에서는 이상의 원칙적인 藥理 외에도 구체적인 본초의 활용에 관하여서도 제시하고 있는데, 『草本卷』에서는 기존의 『東醫寶鑑』에서의 本草 분류개념이 그대로 활용된 면이 보여, 本草를 기능에 따라 ‘解表之藥’, ‘通膈之藥’, ‘化痰之藥’, ‘補虛之藥’ 등으로 분류하고, 각 체질별 기능에 따른 약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Constitutional herbs according to effectiveness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解表之藥	輕	葱白 蘇葉	防風	麻黃 杏仁
	重	人蔘 桂枝	羌活 柴胡	牛黃 熊膽
通膈之藥	輕	桃仁 當歸, 大小承氣湯	香油 蓖麻油	大黃 青礞石
	重	如意丹	黑丑 甘遂 芫花	皂角 瓜蒂

이상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證治醫學의 本草 분

류와 유사하나, 기존의 證治醫學의 분류와는 다른 본초의 예도 볼 수 있다. 특히 少陰人의 경우 重證 解表之藥으로 소개된 人蔘은 기존의 證治醫學과는 다른 개념을 보이는 것이다. 『草本卷』에서는 人蔘을 古方에서 外感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補中과 善表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고, “少陰人의 경우 기존의 溫補藥으로 분류되는 ‘人蔘·黃芪·官桂·附子’의 네 개의 약재는 ‘表功’을 겸하고 있다”¹³⁾고 언급하며, 각 약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Comparison of *So-yin-in* External-herbs(表藥)

	補의 기능	表에 대한 작용	응용질환
人蔘	補中	善表	外感
黃芪	固中	實表	虛汗
官桂	壯中	達表	痘疹
附子	逐冷壯火	達表	陰症泄瀉

또한, 체질별 본초에서 功力이 비슷한 약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 Constitutional herbs with same effectiveness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蔘 茸	輕粉	麝香
白朮 當歸	枸杞子 熟地黃	麥門冬 五味子
生薑 陳皮	竹瀝 瓜蒌仁	黃芩 皂角
半夏 南星	黑丑 芫花	大黃 檮根皮
丁香 木香 藿香	朱砂 黃連 龍膽草	牛黃 遠志 麥門冬

이외에도 『草本卷』에서는 本草가 修治法에 따라 효능의 차이를 보인다고 인식하여, “甘草의 경우는 生用하면 補肝하고 灸用하면 補脾하며, 地黃은 生用하면 清胃火하고 熟用하면 滋陰元한

1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視古方之用人蔘于外感則 人蔘有補中善表之力可知也. 視古方之用黃芪于虛汗則 黃芪有固中實表之力可知也. 視古方之用官桂于痘疹則 官桂有壯中達表之力可知也. 視古方之用附子于陰症泄瀉則 附子有逐冷壯火達表之力可知也, 皆四藥補藥而兼表功.”

다.”고¹⁴⁾ 보고, “芍藥·當歸와 같은 少陰人藥은 炒하여 사용하고, 黃栢·知母와 같은 少陽人藥은 生用해야 한다.”고¹⁵⁾ 하여, 少陰人 藥物은 주로 炒, 灸, 炮를 통하여 脾元의 기능을 도울 수 있다¹⁶⁾고 인식하였다.

이외에 『草本卷』에서는 다른 서적에서는 보기 힘든 내용이 보이는데, 우선 기존 本草의 체질 분류와는 다른 내용이 언급되어 “甘草의 경우는 生用하면 補肝한다.”, “升麻는 腎藥이며, 白芍藥은 肝藥인데 炒用하면 脾藥이 된다.”¹⁷⁾거나, “鹿茸이 少陰人藥인 것 같으나, 의학경험을 해보니 少陰人藥인지 太陰人藥 인지 아직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¹⁸⁾와 같은 내용인데, 실제 처방에서 보면 芍藥과 甘草는 太陽人 裏證을 치료하는 獼猴桃湯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升麻의 경우는 腎藥이라고 언급하였으나 少陽人 처방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太陰人 처방에서만 사용되었다. 이를 보면 東武公의 경우 本草의 분류에서 이론적인 원리를 형성하고 本草를 각 체질의 약물로 정리하였으나, 약물분류 과정에서는 그의 의학적 경험을 근거로 이론을 정리해 갔음을 알 수 있으며, 『草本卷』에서는 아직 本草의 활용 경험이 미숙하여 분류가 아직 확정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草本卷』의 藥理는 通

外하는 약물을 肺藥으로, 溫裏하는 약물을 脾藥으로, 固中하는 약물을 肝藥으로, 清腸하는 약물을 腎藥으로 정리하고, 각 체질별 약물을 기존 의학의 개념과 유사한 효능에 따라 解表之藥·通膈之藥·化痰之藥·補虛之藥 등으로 분류하고, 유사한 효능을 보이는 약물을 체질별로 비교하기도 하였다. 또한 체질별 약물에서 修治法에 따라서 효능이 변한다는 개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草本卷』 당시에는 아직 의학경험이 미숙하여 체질 약물의 분류를 완성하지 못한 내용이나 升麻처럼 腎藥으로 언급하고 실제 약방에서는 太陰人 處方에서 활용한 예도 보인다.

2. 『東武遺稿』의 本草 인식

『東武遺稿』¹⁹⁾는 四象醫學의 다른 자료에서 보기 힘든 本草에 관한 많은 언급이 있어 四象醫學의 本草에 관한 주요한 자료로, 體質病證과 新定方이 완성되기 이전의 東武公의 초기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추정된다²⁰⁾.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本草를 肺藥·脾藥·肝藥·腎藥으로 분류하고, 각각에서 유사한 효과를 지니는 약물을 제시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4).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東武遺稿』에서도 각 체질의 偏小之臟을 중시하여 偏小之臟을 치료하는 本草를 각각의 체질약물로 인식하고, 각 偏小之臟에 비슷한 효능을 발휘하는 本草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東武遺稿』에서는 각 本草가 어떤 장기로 들어가게 되는 원인을 밝히려는 내용이 보이는데, 처음으로 언급된 내용은 肺肝의 開闔과 脾胃의 出納과 관련된²¹⁾ ‘通塞升降’이다. “牛黃·熊

- 1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 “甘草生用則補肝 灸用則補脾, 地黃生用則清胃火 熟用則滋陰元, 水銀配硫黃則除大毒, 石膏配粳米則安腸胃.”
- 1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 “芍藥 當歸 少陰之藥 炒用得當, 黃栢 知母 少陽之藥 生用得當, 人蔘 地黃 補中之藥 晝服得當, 麻黃 蘇葉 發表之藥 夜服得當.zx
- 1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 “當歸 白芍藥 微炒, 白朮 半炒, 乾薑 附子 南星 炮用, 黃芪 灸用, 蓋脾氣喜完聚而忌損散 故凡藥性之過于橫散者 或炒或灸或炮 使完聚而保和脾元 古方用藥經歷已久 後人真不可淺見而妄違之 至于驗症診脈 博采古醫經驗 青於藍而出於藍則出于無咎.”
- 17)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藥方之第四統』
: “升麻自是腎藥 白芍藥自是肝藥而炒用則入於脾藥 今茲新方不泥古方 後人亦不必泥今方 加減之炒變通之 故益求其善.”
- 18)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藥方之第四統』
: “獼肝爲少陰人藥則真的無疑 鹿茸爲少陰人藥則猶加疑 少陰人有服鹿茸顯效 其後又見太陰人二人有服鹿血顯效 皆未得其真不敢真決.”

- 19) 량병무, 차광석 번역, 李濟馬 著, 東武遺稿(國譯韓醫學大系) 15, 서울, 海東醫學社, 1999
『東武遺稿』는 東武 李濟馬 선생이 남긴 원고를 후에 제자들이 편찬한 것으로 手寫本으로 전해오다가 1966년 7월에 북한 보건성 동의간부양성소 사상반 명의로 謄寫版으로 간행되었다.
- 20) 박성식, 「東武遺稿 藥性歌」에 대한 研究, 서울, 四象體質醫學會誌, 2001;13(2):8-27
- 21) 『東武遺稿·總論』
: “肺以開 肝以闔 肝肺者 開闔之門戶也, 脾以納 腎以出 脾腎者 出納之府庫也”

Table 4. Effectiveness of constitutional herbs in 『Dong-mu's posthumos work』

	脾藥	腎藥	肺藥
補○和○	人參	熟地黄	麥門冬
健○直○	白朮	山茱萸	五味子
固○立○	炙甘草	茯苓	砂糖
壯○而有內守之力	當歸	知母	山藥
壯○而有外揚之勢	川芎	澤瀉	桔梗
壯○而有充足內外之力	官桂	木通	牛黃
錯綜○氣 參伍○調	陳皮	牡丹皮	石菖蒲
收斂○元	白芍藥	黃柏	黃芩
安(氣-精-神) 定(魂-志-意)	藿香 砂仁	黑桑椹 枸杞子	酸棗仁 龍眼肉
(溫肉理-滋骨髓-開皮毛)	乾薑 肉豆蔻	石花 童便	天門冬, 甘菊
(消-豁-潤)○痰	製半夏 炮南星	瓜蒌仁 竹瀝	桑白皮, 杏仁
解○之表邪	紫蘇葉 蔥白	羌活 防風	麻黃, 款冬花
醒○之眞氣	桃仁 紅花	黃蓮 山梔子	遠志 檉根白皮
滌○之穢氣	蓬朮 三稜	滑石 豬苓	鬱金, 朱砂
開○之胃氣而消食進食	神曲 丁香 木香 香附子	麥芽 生地黃 地骨皮 竹茹	蓮肉 薏苡仁, 白果 黃栗
爲○元帥之藥 能驅逐○元虛弱	炮附子	石膏	熊膽
能除○之久病	紫河車	輕粉	麝香
通○之關格-結胸-痢便	巴豆	甘遂	大黃

膽·麝香·麻黃·杏仁·山藥·桔梗·黃芩·皂角 등과 같이 通力이 강한 약물이 闔氣가 많고 開氣가 적어 발생한 肺病을 치료하는 肺藥이고, 蕎麥·葡萄·黃芪·甘草·五加皮·獼猴桃 등과 같이 塞力이 강한 약물이 開氣가 많고 闔氣가 적어 발생하는 肝病을 치료하는 肝藥이며, 官桂·附子·當歸·川芎·木香·陳皮·蔘·朮·鹿茸·紫河車 등과 같이 升力이 강한 약물이 降氣가 많고 升氣가 적어 발생하는 脾病을 치료하는 脾藥이고, 地黃·黃柏·山茱萸·枸杞子 등과 같이 降力이 강한 약물이 升氣가 많고 降氣가 적어 발생하는 腎病을 치료하는 腎藥이다.”²²⁾고 인식하였다. 이

22) 『東武遺稿·總論』
: “肺之病 闔氣多而開氣少 故其藥宜通 而不宜塞也. 牛黃熊膽麝香麻黃杏仁山藥桔梗更黃芩皂角之類 通力有餘 故肺病之吉藥也. 蕎麥葡萄木瓜黃芪甘草之類 塞力有餘 故肝病之凶藥也. 肝之病 開氣多而闔氣少 故蕎麥葡萄黃芪甘草五加皮獼猴桃之類 塞力有餘 故

는 각 本草의 효능이 ‘通塞升降’ 중에 어디로 요약될 수 있는지에 따라 肺脾肝腎藥으로 분류한 방식이다.

다음으로 언급된 내용은 ‘馨臭液味’로 本草의 氣味厚薄에 따라 氣之薄한 馨이 풍부한 麥門冬·五味子·石菖蒲 등과 같은 本草는 肺로 들어가는 肺藥이고, 氣之厚한 臭가 풍부한 官桂·附子·白朮·當歸 등과 같은 本草는 脾로 들어가는 脾藥이며, 味之薄한 液이 풍부한 蕎麥·葡萄·木瓜 등과 같은 本草는 肝으로 들어가는 肝藥이고, 味之厚한 味가 풍부한 本草는 腎藥이라고 인식하였는데²³⁾, 이는 耳目鼻口의 神靈魂魄과 관련하여 제시한 ‘無形之物·有像之物·無跡之物·有質之物’²⁴⁾과 관련지을 수 있다.

『東武遺稿』에서는 이상과 같이 ‘通塞升降’, ‘馨臭液味’를 기준으로 本草를 肺脾肝腎藥으로 분류하고 『草本卷』과 유사한 방식으로 本草의 효능에 따라 각 체질별 주요 병증을 치료 本草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5).

표로 정리된 내용을 고찰해보면, 下藥의 경우 大黃을 肺之下藥으로 인식하면서도 桃仁當歸와 함께 少陰人에게 활용한 것²⁵⁾이나, 少陽人 發表藥의 輕症에 활용하는 本草로 升麻, 葛根을 제시한 내용은 이후 『東醫壽世保元辛丑本』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少陽人의 경우는 부위와 작용기전에 따라 다양한 清熱藥을 제시하고 있

肝病之吉藥也. 牛黃麝香之類 通力有餘 故肝病之凶藥也. 脾之病 降氣多而升氣少 故官桂附子當歸川芎木香陳皮蔘朮鹿茸紫河車之類 升力有餘 故脾病之吉藥也. 石膏黃連澤瀉山茱萸之類 降力有餘 故肝病之凶藥也. 腎之病 升氣多而降氣少 故地黃黃柏山茱萸枸杞子之類 降力有餘 故腎病之吉藥也. 官桂附子蔘茸之類 升力有餘 故腎病之凶藥也.”

23) 『東武遺稿·總論』
: “四藥之於四臟也 馨歸於肺 臭歸於脾 液歸於肝 味歸於腎”
24) 『東武遺稿·總論』
: “耳屬神 無形之物 故能聽天時輕清無形之聲. 目屬靈 有像之物 故能視世會浮動有像之色. 鼻屬魂 無跡之物 故能嗅人倫沈靜無跡之像. 口屬魄 有質之物 故能味地方重濁有質之滋也.”
25) 『東武遺稿·下藥』
: “少陰人 下藥 輕則桃仁當歸加大黃也 重則巴豆也 然巴豆大毒 小用如粒如綠豆大 次次試而用之 大黃則肺之下藥也 有桃仁當歸 故兼帶用之也.”

Table 5. Constitutional herbs according to effectiveness in 『Dong-mu's posthumous work』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
發表藥	(輕)麻黃 杏仁 (重)牛黃 熊膽	(輕)藿香 川芎 蘇葉 葱白 (重)桂枝湯	(輕)升麻 葛根 防風 (重)羌活 柴胡 荊芥 牛蒡子
泄瀉藥	黃栗 山藥 檉根白皮 五味子	附子理中湯 十全大補湯加肉苳蔻破古紙	益元散 四苓散加柴胡 六味湯倍山茱萸
清熱藥	黃芩 桔梗 天門冬 麥門冬	人參 官桂 炮附子	黃連 梔子 生地黃 石膏 知母 黃柏
下藥	滾痰丸	(輕)桃仁當歸加大黃 (重)巴豆	(輕)蓖麻子油 黑丑 (重)天一丸
痢疾藥	大黃 檉根皮	清蜜 大蒜	唐黃連 石蟹汁
卒中風藥	牛黃清心元 牛黃 石菖蒲遠志	蘇合元 備急丸	瀉青丸
眼病	山蔘末	硼砂末	龍腦
痰藥 ²⁷⁾	(肺之痰藥)黃芩 青礞石 (重)檉根皮 大黃	(脾之痰藥)半夏 南星 (重)巴豆 砒霜	(腎之痰藥)竹瀝 瓜蒌仁 (重)蘆薈 甘遂 芫花
吐血	天門冬 連根汁	生地黃 木丹皮 黃柏	香附子 川芎 人參
關格	瓜蒂	甘遂	巴豆

다²⁶⁾.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東武遺稿』시기에는 通塞升降과馨臭液味를 기준으로 하여 本草를 체질별로 분류하였으며, 『草本卷』과 유사하게 약물의 효능을 중심으로 發表藥 · 清熱藥 · 下藥에 해당하는 本草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도 아직 체질별 本草를 혼용한 내용이나 本草의 분류에서도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내용이 보인다.

3.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의 本草 인식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은²⁸⁾ 東武公의 완성된 의학이론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 의학서이다. 따라서 『辛丑本』에서 정리된 本草 관련 내용이 東

武公의 완성된 이론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많지 않아 그의 本草에 관한 최종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辛丑本』에서 소개된 내용을 정리하여 東武公 본초에 관한 이론을 정리해 보겠다.

우선 『辛丑本』에서는 각 체질별로 本草를 분류하고, 각 체질별 약물이 혼용될 수 없다는 이론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東武遺稿』에서는 下藥에 있어서, 少陰人의 경우 大黃은 肺藥으로 太陰人藥이지만 桃仁當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辛丑本』·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에서는 麻黃과 大黃을 예로 들어 “이는 太陰人藥으로 少陰人藥이 아니므로 少陰人病에는 表裏와 상관없이 이 약을 사용할 수 없다”²⁹⁾는 내용으로 내용이 정리된다. 또한 『草本卷·藥方』에서는 각 체질별로 응용 가능한 처방을 제시하는 내용만이 있었으나, 『辛丑本』의 처방에서는 「張仲景 傷寒論中 ○○○病 經驗設方藥 ○○方

26) 『東武遺稿·少陽人 清熱藥』
：“柴胡羌活 發表之雄藥也。豬苓木通 通水之善藥也。石膏滑石 去內熱之主藥也。荊芥防風牛蒡子 去外熱之神藥也。薄荷白芷蒼耳子 清頭面之妙藥也。黃連山梔子 大清熱胸中之火。石膏滑石 大清腹胃之火。知母黃柏草龍膽 大清腰脊之火 抑火而救風。生地黃 清胃而安腎。熟地黃枸杞子 補陰之君藥也。牡丹皮地骨皮 降火之祐藥也。”

27) cf) “肝之痰藥 五加皮木瓜”

28)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은 1894년의 『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 이후에 東武公이 庚子年까지 改草한 내용을 辛丑年에 그의 문도인 율동계에서 처음으로 출판한 것. 이하 『辛丑本』이라 함.

29) 『辛丑本·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論曰 病發於陰 而反下之云者 病發於胃弱 當用藿香正氣散 而反用大黃下之之謂也 麻黃大黃 自是太陰人藥 非少陰人藥 則少陰人病 無論表裏 麻黃大黃 汗下 元非可論。”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病 經驗行用要藥 ○○方」·「新定 ○○○病 應用要藥 ○○方」으로 구분하여 처방을 정리하였는데, 이중에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病 經驗行用要藥 ○○方」에서는 宋元明 歷代醫家の 처방을 제시하고 여기서 그 체질약물이 아닌 본초는 제외하고 해당 체질의 약물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해당 체질에는 해당 本草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완성됨으로 나타난 양식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辛丑本·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에서의 肥兒丸 설명에서의 使君子처럼³⁰⁾ 아직 어떤 체질에게 적합한지를 확정하지 못한 本草도 있다.

또한 『草本卷』에서는 기존 本草 이론의 원칙과 유사하게 ‘本草가 각각 어떤 氣味를 가지고 어떤 效能을 나타내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本草가 연구되다가, 『辛丑本』에 이르면 體質病證이론이 완성됨에 따라 “각각의 本草가 體質 病證의 어떤 단계를 치료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辛丑本·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에서 물론 窮巷僻村이라 藥材를 구하기 힘든 경우에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少陰人의 四大病證에 응용할 수 있는 주요 약물을 제시하고, 처방을 활용할 경우도 환자의 해당 病證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의 구성 약물은 單味로도 활용이 가능하나, 처방에 사용되지 않은 本草는 활용하지 말 것을 언급하였다³¹⁾. 이는 주요 체질 병증에 활용할 수 있는 본초의 내용도 정리되어

한 체질 안에서도 체질병증에 따라 응용 가능한 本草를 달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少陽人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石膏와 甘遂를 비교하여 石膏는 裏熱病에서 응용할 수 있고 甘遂는 表寒病에서 응용가능하며³²⁾, 亡陰病에서도 身寒腹痛泄瀉에는 黃連·苦參을 활용할 수 있고, 身熱頭痛泄瀉에서는 石膏를 활용할 수 있다³³⁾고 언급하였다.

III. 考 察

韓醫學에서는 病證을 치료함에 韓藥을 통한 치료가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따라서 四象醫學의 病證을 치료함에도 本草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四象醫學은 100여 년 전에 東武公이 여러 해의 임상경험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완성한 의학으로, 그의 초기 서적부터 최종 서적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四象醫學의 藥理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여 완성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초기 서적인 『草本卷』과 『東武遺稿』를 통하여 초기 藥理를 정리하고, 그의 최종 의학서인 『辛丑本』을 통하여 그의 최종적인 藥理를 정리하였다.

『草本卷』에서는 本草의 작용이 脾胃에서의 水穀之出納과 肺肝에서의 氣液之散充중에 어느 작용에 관여하는가에 따라 外通하는 太陰人藥을 肺藥으로, 清腸하는 少陽人藥을 腎藥으로, 固中하는 太陽人藥을 肝藥으로, 溫裏하는 少陰人藥을 脾藥으로 命名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本草의 분류는 東武公의 독특한 견해로 기존의학에서는 언급되지 않던 내용이나, 이외에 각 체질의 本草를 효능에 따라 ‘解表之藥’, ‘通膈之藥’, ‘化痰之藥’, ‘補虛之藥’ 등으로 구분하고 다시 輕·重에 따라

30) 『辛丑本·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
：“胡黃連 五錢 使君子肉 四錢 五分 人參 黃連 神麴 麥芽 山查肉 各三錢 五分 白茯苓 白朮 甘草 各三錢 蘆薈 二錢 五分 右爲末 黃米糊和丸 菽豆大 米飲下 二三十丸 ○ 治小兒疳積 ○ 今考更定 此方 當去 人參 白朮 山查肉 甘草而 使君子一味 未能經驗的知藥性故 不敢輕論。”

31) 『辛丑本·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窮巷僻村 病起倉卒 雖單方 猶百勝於束手無策. 陽明病 雖單黃芪·桂枝·人參·芍藥 亦可用. 少陰病 雖單附子·芍藥·人參·甘草 亦可用. 太陽病 雖單蘇葉·蔥白·黃芪·桂枝 亦可用. 太陰病 雖單白朮·乾薑·陳皮·藿香 亦可用. 爲先用單方而一邊求得全方 則必無救病失機之理 然 當用 全方中 所有之藥 不當用 全方中 所無之藥.”

32) 『辛丑本·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甘遂 表寒病 破水結之藥也 石膏 裡熱病 通大便之藥也. 表病可用甘遂 而不可用石膏 裡病 可用石膏 而不可用甘遂. 然 揚手擲足 引飲泄瀉證 用石膏. 痺風膝寒 大便不通證 用甘遂.”

33) 『辛丑本·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 忽然有吐者 必生奇證也 當用荊防敗毒散 以觀動靜 而身熱頭痛泄瀉者 用石膏無疑. 身寒腹痛泄瀉者 用黃連 苦參無疑.”

다른 약물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며, 이에 근거하여 각 체질별 효능이 유사한 약물을 비교하여 언급한 것은 기존 證治醫學의 本草에 관한 인식의 틀을 도용한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本草의 四象 分類에서 이후의 서적과는 다른 내용이 보이는데, ‘甘草를 生用하면 補肝하고, 升麻는 腎藥이며, 白芍藥은 肝藥이다. 鹿茸은 少陰人藥인 것 같으나, 의학경험을 해보니 少陰人藥인지 太陰人藥 인지 아직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고 이 중에 升麻의 경우는 腎藥이라고 하였으나 少陽人 處方에서는 보이지 않고, 太陰人 處方에서만 활용되었다. 이는 아직 『草本卷』 저술 당시에는 의학경험이 풍부하지 않아 藥理에 관한 정리가 미완의 과정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東武遺稿』에서의 本草 分類는 『草本卷』과 큰 차이 없이 肺肝의 開闔과 脾腎의 出納과 관련된 ‘通塞升降’을 중심으로 본초를 분류하여 通力이 강한 약물이 闔氣가 많고 開氣가 적어 발생한 肺病을 치료하는 肺藥이고, 塞力이 강한 약물이 開氣가 많고 闔氣가 적어 발생하는 肝病을 치료하는 肝藥이며, 升力이 강한 약물이 降氣가 많고 升氣가 적어 발생하는 脾病을 치료하는 脾藥이고, 降力이 강한 약물이 升氣가 많고 降氣가 적어 발생하는 腎病을 치료하는 腎藥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각 本草의 효능이 ‘通塞升降’중에 어디로 요약될 수 있는지에 따라 肺脾肝腎藥으로 분류한 방식이다. 이외에 ‘馨臭液味’를 本草 분류의 또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여 本草를 氣味厚薄에 따라 氣之薄한 馨이 풍부한 本草는 肺로 들어가는 肺藥이고, 氣之厚한 臭가 풍부한 本草는 脾로 들어가는 脾藥이며, 味之薄한 液이 풍부한 本草는 肝으로 들어가는 肝藥이고, 味之厚한 味가 풍부한 本草는 腎藥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 분류된 本草를 중심으로 각 체질별로 效能에 따라 解表藥·泄瀉藥·清熱藥·痢疾藥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東武遺稿』에서도 少陰人의 下藥의 경우 大黃을 肺之下藥으로 인식하면서도 桃仁, 當歸와 함께 少陰人에게 활용한 것이나, 少陽人 發

表藥의 輕症에 활용하는 本草로 升麻, 葛根을 제시한 내용이 보이는데 이를 통하여 보면 『東武遺稿』저술 당시에도 아직 의학이론이나 藥理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서적에서 本草의 체질별 분류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황에서, 『辛丑本』에서는 體質病證이 완성됨에 따라서 각 體質別 本草에 있어서도 각각의 本草가 體質病證의 어느 단계를 치료하는가에 관한 이론이 정리된 것으로 보이며, 체질별 약물의 混用은 不可하다는 원칙뿐만 아니라, 한 체질에서도 각각 다른 단계의 體質病證에서 활용할 수 있는 本草를 세밀히 분류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인다. 또한 東武公의 최종 서적에서도 체질 분류를 완료하지 못한 本草에 관한 언급이 나온 것으로 보아 東武公의 藥理는 직관에 의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환자의 病證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임상경험을 통하여 몇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IV. 結 論

1. 『草本卷』에서는 체질별 本草의 분류 기준으로 外通·固中·清腸·溫裏를 제시하였으나 이에 근거한 本草의 분류에서는 아직 미완의 내용이 보이며, 기존 證治醫學과 유사하게 效能에 근거한 藥理도 제시하였다.

2. 『東武遺稿』에서는 체질별 本草의 분류 기준으로 通塞升降과 馨臭液味를 제시하였으며, 『草本卷』과 유사하게 效能 중심의 藥理가 제시되었고, 또한 아직 체질별 本草의 混用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3. 『辛丑本』에서는 體質病證의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체질별 本草를 인식하였으며, 체질별 분류가 확정된 本草의 混用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4. 四象醫學의 藥理는 오랜 기간의 임상 경험을 통하여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완성된 내용이다.

5. 四象藥理의 초기에는 本草의 氣味와 效能에 따라 단편적으로 어느 偏小之臟의 升降緩束을 보

안해주는가에 따라 本草를 이해하였고, 후기에 이르러서는 偏小之臟·偏大之臟의 보완·억제 중 어느 작용하는가에 따라 體質病證의 세부 분류에 따른 本草分類을 완성해갔다.

V. 參考文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사상체질과. 2004
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사상체질과. 2004
3. 량병무·차광석 번역, 李濟馬 著, 東武遺稿; 國譯韓醫學大系 15. 서울: 海東醫學社. 1999
4. 宋一炳. 四象醫學의 藥理的 考察.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67
5. 宋炳基. 東醫壽世保元 新定方에 使用된 藥材의 本草性能에 관한 통계적 연구. 東洋醫學 1976;2(3)
6. 鄭鳳然. 四象醫家에서 分類한 各 體質藥物에 관한 文獻考察. 四象體質醫學會誌 1995;7(1): 169-262
7. 李時雨. 東醫壽世保元 처방에 活用된 藥材에 대한 考察. 전북익산: 원광대학교대학원. 1999
8. 金중열. 四象 藥材別 藥材 分類에 관한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2001;13(1):8-16
9. 朴성식. 「東武遺稿 藥性歌」에 대한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2001;13(2):8-27
10. 이수경.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1999;11(1):77